

재외동포의



2014 | 10

특집 | 지역 경제 활성화 돕는 제13차 부산 세계한상대회
한인 경제인 3천 명 집결, 협력·상생하는 비즈니스 장 펼치다

화제 | 전 세계 동포사회도 풍성한 한가위 축제
“추석, 현지인과 함께 즐겨요!”

한민족 공감 | 박근혜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남북통일에 국제사회 협조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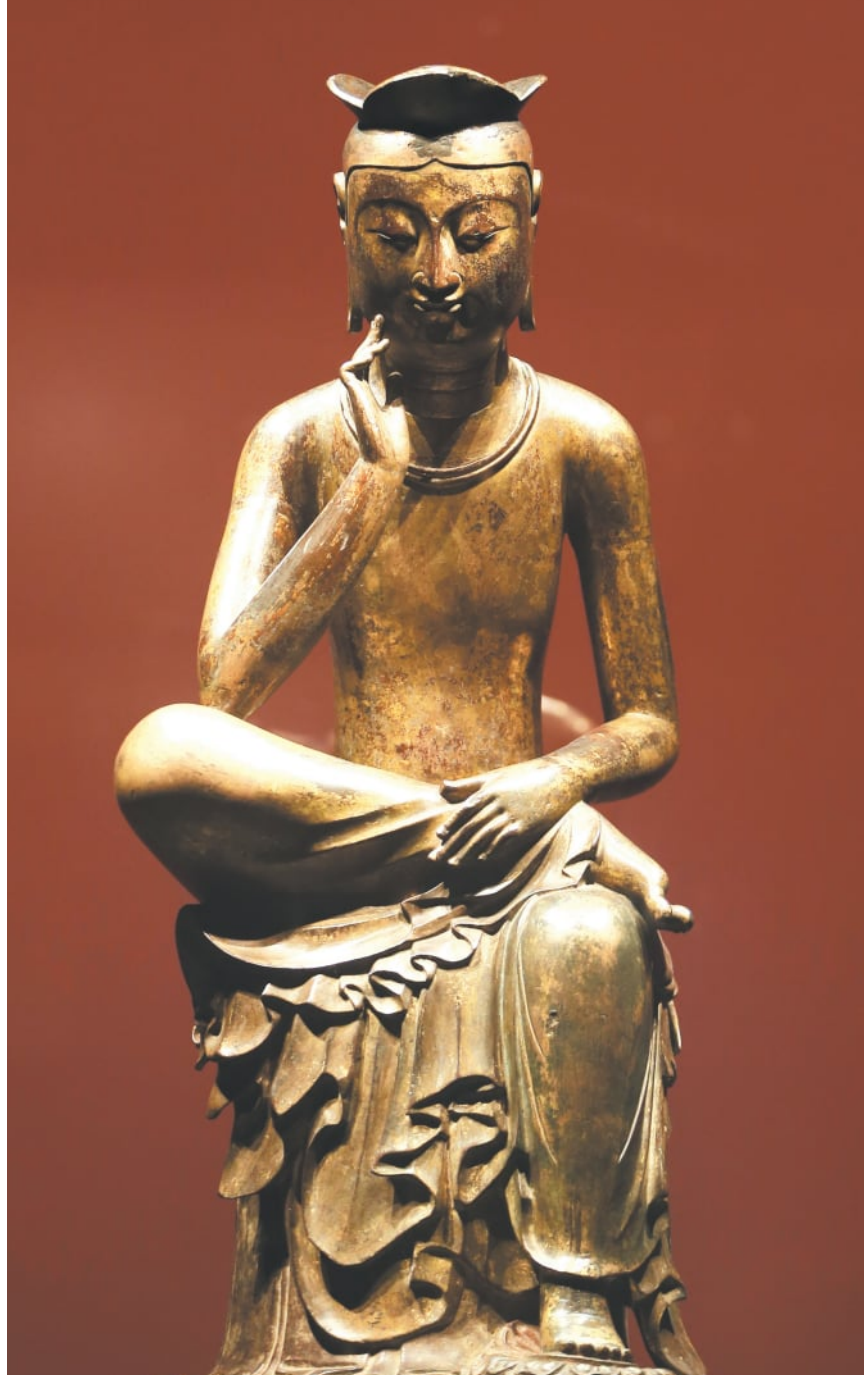


국보 83호 금동반가사유상 잔잔한 미소가 풍기는 송고미

국보 83호 금동반가(半伽)사유상은 우리나라 고대 불교 조각사 연구의 출발점이자 6, 7세기 동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불교 조각품 가운데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반가사유상은 왼쪽 다리 무릎 위에 오른쪽 다리를 올린 이른바 반기한 자세에 오른뺨에 오른쪽 손가락을 살짝 대어 마치 사유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불상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해 명상에 잠긴 신타타 태자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은 크기가 93.5cm로 금동으로 만든 반가사유상 중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최상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작품이다. 단순하지만 균형 잡힌 신체, 자연스러우면서도 입체적으로 처리한 옷 주름, 분명하게 표현된 이목구비, 정교하고 완벽한 주조 기술, 여기에 더해 얼굴의 잔잔한 미소는 종교의 예배 대상이 주는 송고미를 더해 준다.

머리에는 세 개의 빈원이 이어진 삼산관(三山冠)을 쓰고 있다. 관의 표면에 아무런 장식도 표현되지 않아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풍기는데, 이러한 형식의 보관은 인도나 중국의 보살상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풍만한 얼굴에 작지만 길게 묘사된 눈은 끝이 살짝 올라가 다소 날카로운 인상을 풍긴다. 그러나 이를 무마하듯 단정하게 다문 입꼬리가 미소를 짓는 모습은 신비감마저 주고 있다. 반가사유상을 제작할 때 특히 어려운 점은 오른팔의 처리이다. 오른팔은 무릎에서 꺾어서 뺨에 다시 닿아야 하므로 길게 표현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국보 83호 상은 오른쪽 무릎을 위로 살짝 들어 팔꿈치를 받쳐주고 그 팔 또한 비스듬히 꺾어 살짝 구부린 손가락을 뺨에 대고 있어 매우 치밀한 역학적 구성을 보여 준다. ㉠



▲ 국보 83호 금동반가사유상은 크기가 93.5cm로 금동으로 만든 반가사유상 중에서 가장 크다.



▲ 세계 4대 박물관 중 하나인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이 올해 2월까지 연 '황금의 나라, 신라'전에 출품된 국보 83호 금동반가사유상



Cover Story

한민족 경제인 최대의 축제인 '제13차 세계 한상대회'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열려 협력과 상생의 비즈나스장을 펼쳤다.

CONTENTS

재외동포의 창



02	한국의 일	국보 83호 금동반가사유상
04	특집	지역 경제 활성화 돕는 '제13차 부산 세계한상대회'
07	동포 소식	한 많은 '에네켄' 후손 고국서 첫 학사모 의
10	기획 재외동포 이민사 10	50년 넘는 오스트리아의 한인 이주 역사
12	화제	전 세계 동포사회도 풍성한 한가위 축제
14	글로벌 코리아	뉴질랜드 총선서 3선에 성공한 한인 멜리사리 호주 디지털 마케팅계의 기린아 정화관 래시 크리에이티브 대표 스페인 태권도계의 대부 이원일
16	지구촌 통신원	로스앤젤레스 한인 축제 개최
17	동포정책 Q&A	재외동포의 혼인 및 이혼
18	한민족 공감	박근혜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19	동포의 창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구미서 개최
20	동포문화	칼리만탄 고무나무숲
22	OKF 뉴스	재외동포사진전 대상에 호주 권순형 씨 '잘했어' 의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바른 말 고운 말 날말 맞추기
24	교향 소식	추억 속의 관광 명소 경주
26	재단 공지	K-MOVE 해외진출 성공수기 공모전

2014 10 October

발행인 | 조규형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 3415-0100 팩스 |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 · 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사업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한신HP

▶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리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백스코에서 열린 '제13차 세계한상대회'에서 내외 경제인 3천700여 명이 참석해 한상의 동반자적 협력관계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24일 개막식에서 "내외 경제인이 서로 상생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돕는 '제13차부산 세계한상대회' 한인 경제인 3천 명 집결, 협력 · 상생하는 비즈니스 장 펼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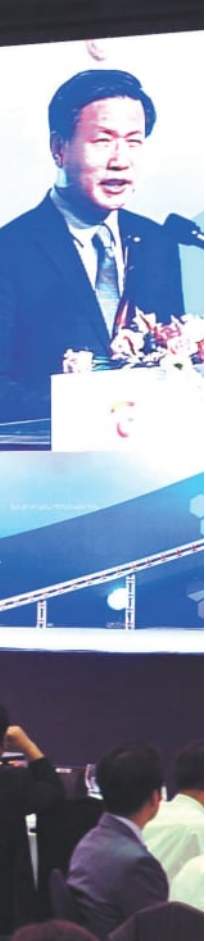
한 민족 경제인 최대의 축제인 '제13차 세계한상대회'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광역시 백스코에서 열려 협력과 상생의 비즈니스 장을 펼쳤다. '새 시대 경제 도약의 동반자, 한상 네트워크!' 라는 슬로건 아래 재외 동포재단 등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국내 경제인 3천 명과 전 세계 42개국에서 모국을 찾은 한상(韓商) 1천여 명이 참석해 한상의 동반자적 협력관계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대회 기간 내내 열린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전시회,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등에서 총 6천588건의 상담이 이뤄져 약 1억 7천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한민족 최대의 장터 한상대회

24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서병수 부산광역시 시장,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박중범 대회장(오스트리아 영산그룹 회장) 등 주요 인사와 국·내외 한인 경제인 3천여 명이 참석했다. 조규형 이사장은 "모국의 경제 영토 확장의 일선에 있는 한상과 국내 경제인이 생생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든 비즈니스 파트너로 성장해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하는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개회를 선언했다.

박중범 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상대회는 12년 만에 한민족 최대의 장터로 성장했다"며 "한상 여러분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청년 인재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해 모국 경제 도약의 동반자가 되도록 한상 네트워크를 발전시키자"고 강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 세계 각국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 한민족 특유의 의지를



두루 갖춘 재외동포 경제인은 창조 경제와 경제 혁신을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라며 "모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달라"고 당부했다.

개회식에 이어 윤석철 서울대 교수가 '문학에서 경영을 배우다'란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주최 오찬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세션 I '재외동포의 모국 투자 활성화'가 열렸다. 이번 대회부터 새롭게 선보인 세션 I에서는 국내 전문가들이 모국 투자 관련 정책 현황을 설명한 뒤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한상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상 기업의 모국 증권시장 상장 △재외동포의 과세 현황과 문제점 △국가별 소득세법 및 법인세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도 곁들여져 모국 투자에 관심 있는 한상의 이해를 도왔다.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킹 활발

대회 이틀째인 25일에는 국내외 한상이 지역별·업종별·분야별로 활발한 네트워킹을 갖는 시간이 집중적으로 마련됐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세션 II '지역별 한상 포럼'에서는 동남아시아,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중동 등 4개 지역별 동향·사업 트렌드 등 정보 교류와 해외 진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아프리카·중동 한상 포럼에서 임도재 아프리카·중동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은 "사하라 이남 신흥 소비세력 '블랙 다이아몬드'가 3억 명에 달한다"며 "아프리카에 대한 지역적·문화적 충분한 이해를 동반한다면 분명히 성공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동남아 한상 포럼에 참가한 코트라(KOTRA) 박영선 차장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의 잠재력이 무한하다"며 국내 중소기업인들의 활발한 진출을 주문

하는 한편 한-라오스 친선협회에서는 라오스 투자 진출 전략을 소개했다.

이 밖에 북미 한상 포럼에서는 '한-미 FTA 발효 이후의 무역 현황'과 주요 지역별 성공 사례가 소개됐다. 중남미 한상 포럼에서는 중남미 지역의 급변하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중남미 지역에 진출하기 좋은 업종에 대해 전략적 논의가 진행됐다. 오후에 열린 세션 III '산업별 네트워킹'에서는 식품·외식, 섬유·패션, 뷰티, IT, 광물, 유통 등 산업별, 직종별 및 업종별 네트워킹이 이뤄졌다. 국내외 참가자들은 분야별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섬유·패션 분과 참석자들은 패션업계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아웃도어 산업의 국내의 시장을 비교했다. 이들은 연평균 성장률 25%에 달하는 아웃도어 시장이 국내에서 춘추전국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스"라는 카테고리로 확장하며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상들의 가장 많은 업종 중 하나인 '식품·외식'에서는 외식업계 대표 한상으로 꼽히는 오영석 동경 한식당 협의회 회장이 한식당의 해외 현지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IT 네트워킹 세션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서태건 원장은 '국내외 IT 산업 동향과 해외 진출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개발로 100억 매출을 한 테크에이스 소프트웨어의 북미 진출 성공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유통 분과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인들에게 필요한 온라인·모바일 마케팅 콘텐츠 확보에 대한 설명회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광물 분과에서는 국내외 광업시장의 현황과 진출 전략을 논의했다. 마지막 뷰티 분과에서는 성공 사례를 통한 전략을 소개해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 기업전시회에서는 440개 기업 및 기관에서 전년보다 약 50개가 늘어난 502개 부스를 차려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미나 프로그램과 더불어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과 기업전시회 상담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하루 종일 활발히 진행됐다. '국내 벤더 및 MRO 바이어 초청 상담회'에서는 대형 유통벤더, 쇼핑몰 벤더, 특수쇼핑몰, 오프라인 벤더, MRO 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기업전시회 부스를 방문하고, 국내 유통망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기회를 얻었다.



▲ 이번 대회에는 기업전시회,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등에서 총 6천588건의 상담이 이뤄져 약 1억 7천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1억 7천만 달러 상담 실적... 내년에는 경주서 개최

대회 셋째날인 26일 오전 '한상 비즈니스 서밋', '리딩 한상 비즈니스 미팅', '영비즈니스 리더 전체회의'에 이어 열린 폐막식에서 참석자들은 내외 동포 경제인 간의 협력과 상생을 약속하며 차기 대회 개최지인 경상북도에 한상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폐회사에서 "한상과 국내 경제인들의 뜨거운 열정 덕분에 어느 해보다 실속 있는 대회였다"고 자평한 뒤 "내외 동포 경제인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상호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대회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업전시회에서는 440개 기업 및 기관에서 502개 부스를 차려 전년보다 약 50개가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개성공단 공동관 ▲부산 특별산업관 ▲한상 특별관 등 테마형 부스가 주목을 받아 참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한상과의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대형 유통업체 MD 초청 상담회 ▲소모성 자재 납품(MRO) 구매상담회 ▲국내 유통벤더 초청 상담회 ▲수출 에이전트 초청 상담회 등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국내외 바이어 17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상담회가 진행됐다.

미국, 영국, 베트남, 일본, 중국 호주 등 10개국 41개 해외 바이어가 참가한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한상넷을 활용한 사전 매칭을 통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한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미국워싱턴주한인상공회의소와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중국 상해한인상회 등 한상 단체 간, 한상 단체와 부산상공회의소 간 업무협약(MOU) 6건이 이뤄졌다. 올해 대회에서는 신규 참가자들의 활약도 돋보였다.

리딩CEO로 발탁돼 이번에 처음 대회를 찾은 임도재 가나 글로텍 엔지니어링 회장은 아프리카 지역 유일한 참가자

로, '지역별 한상 포럼'에 참가해 "신흥 시장인 아프리카를 주목 하라"고 역설했다. 송창근 인도네시아 KMK 글로벌 스포츠 그룹 회장은 '동남아 한상 포럼' 패널로 참석해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기도 했다.

차세대 한상들은 대회 개막 전날인 23일 '네트워크 소그룹'모임을 시작으로 ▲정기총회 ▲대륙별 회의 ▲주제별 소그룹 ▲전체회의 등 대회 기간 내내 모임을 열었다. 이들은 리딩 한상 비즈니스 미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국내 중소기업과의 비즈니스 미팅에도 한층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개최 전날 열린 한상대회 제25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차기대회를 2015년 10월 13~15일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단지의 화백국제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YBLN) 정기총회에서는 콜롬비아의 박원규 넥스트트레이딩 대표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돼 앞으로 2년간 차세대 한상 네트워크의 발전을 이끌게 됐다.

▼ 25일 세션 II '지역별 한상 포럼'에서는 동남아시아,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중동 등 4개 지역별 정보 교류와 해외 진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 많은 '에네켄' 후손 고국서 첫 학사모

“어릴 때부터 집안 어른들에게 들은 한국이란 나라를 동경했어요. 그런 곳에서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고 정말 뿌듯합니다.”

이화여대 경영학과 10학년 마가리타 스밀라 게레로 로드리게스(23·여) 씨는 8월 29일 4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학사모를 쓰게 된 소감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멕시코 유카탄 지역 출신인 로드리게스 씨는 109년 전 태평양을 건너 멕시코로 간 한인, 일명 '에네켄(Henequen)' 이라 불리는 이민자 4세대다.

1906년 1천여 명의 한인은 구한말의 지독한 가난을 버티지 못하고 머나먼 멕시코로 건너가 현지의 에네켄 선인장 농장과 4년의 노예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대한 제국이 일제에 의해 쇠망하면서 대부분의 에네켄은 끝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미국·쿠바로 가거나 멕시코 현지에 남았다.

로드리게스 씨 가족도 한인인 그의 증조부가 유카탄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곳에서 대가 이어졌다. 가슴 아픈 이민사를 지닌 멕시코 한인 후손이 한국을 찾아 대학 졸업장을 받는 것은 이민 역사 109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이화여대가 시행 중인 개발도상국 여성인재 학위과정 프로그램(EGFP) 대상자로 선정돼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생활한 그는 국내 한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해 1년간 한국에서 일한 뒤 멕시코 지사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그는 “아버지가 많이 기뻐하실 것 같다”며 “항상 자식들에게 ‘한국인의 뿌리’를 강조하셨고, 한인 이민자가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를 말씀해주셨다”고 털어놓았다.



▲ 멕시코 이민자 후손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 대학의 학사모를 쓴 마가리타 스밀라 게레로 로드리게스 씨

재일민단, 간토 대학살 희생자 91주기 추념식 거행



▲ 간토 대학살 희생자 91주기 추념식이 도쿄의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회관에서 거행됐다.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關東) 대지진 때 지행된 조선인 학살 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91주기 추념식이 9월 1일 도쿄의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 중앙회관 대강당에서 거행됐다.

김수길 재일민단 도쿄본부 단장은 추념사에서 “간토 대지진은 엄청난 천재지변이자, 일본 관헌에 의해 날조된 유언비어를 핑계로 우리 동포들을 무차별 학살한 청천벽력 같은 인재였다”면서 “일본인들의 민행은 인류 역사의 치욕으로 영원히 규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어 “우리가 매년 추념식을 하는 것은 91년 전 수천 명이 학살된 일본의 비인간적인 민행을 규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고 민행의 역사를 후세에 전하기 위한 것”이리면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날 추념식에는 유흥수 주일대사, 오공태 민단중앙본부 단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간토 대지진 때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등의 유언비어가 확산하면서 6천 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본 군인과 경찰, 민간인 지경단 등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일본 정부의 진상 은폐 등으로 정확한 희생자 숫자는 물론 유골의 행방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10회 흥타민컵 조선족 어린이 방송축제 개최

중국 조선족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말과 노래 등의 솜씨를 겨루는 '제10회 흥타민컵 전국 조선족 어린이 방송문화축제'가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중국 헤이룽장(黑龍江) 성 하얼빈(哈爾濱) 시에서 열렸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후원하고 흑룡강조선어방송국과 중국국제방송국 조선어부가 공동 주최한 이 축제는 조선족 어린이들이 노래, 글짓기, 이야기, 피아노 등 네 부문으로 나눠 실력을 겨루는 행사다.

한글·한국어와 관련된 유일한 조선족 전국 행사로 헤이룽장 성 이외에도 지린(吉林) 성, 라오닝(遼寧) 성,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네이멍구(內蒙古) 등지에서도 참가자가 몰려 올하는 700명이 예선을 펼쳤다. 부문별 15명씩 본선에 올랐으며 글짓기 부문에서 1명이 추가돼 61명이 최종 경연을 벌였다.

글짓기 부문에서는 지린 성 류허(柳河) 현 조선족실험소학교 김보경 양이 '스마트폰 때문에'란 주제의 글로 1등인 금상을 받았다. 이야기 부문에서는 '엄마는 영원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부모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한 헤이룽장 성 닝안(寧安) 시 조선족소학교의 이현정 양이 금상을 차지했고, 노래 부문에서는 지린 성 연지(延吉) 시 연남소학교의 지한립 군이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피아노 부문에서는 쇼팽의 원무곡을 연주한 지린 성 연지시 북산소학교의 리충 군이 현란한 기교를 선보여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금상 수상자로 뽑혔으며 수상자에게는 영예 증서와 함께 전기밥솥, 보온도시락 등의 부상이 주어졌다.



▲ 흥타민컵 조선족 어린이 방송문화축제에서 글짓기 부문 본선에 오른 참가 학생들이 원고를 작성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사할린 강제 동원 유해 18구 봉환



▲ 사할린 강제 동원 한인 희생자 18명의 유골 안치식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현지에서 사망한 한국인 유해가 작년에 국내로 처음 봉환된 데 이어 2차로 유해 18구가 돌아왔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9월 28일 사할린 강제 동원 한국인 희생자 유골 18구를 국내로 봉환하고 29일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했다.

사할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일제에 의해 1930년대 후반부터 광복 직전까지 현지 탄광과 토목공사 현장 등으로 끌려가 착취를 당했다. 일제는 해방 후 이들을 사할린에 그대로 방치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1990년 한·러 수교 이전까지 귀국하지 못한 채 타향에서 생을 마감했다.

위원회는 2005년부터 사할린 지역 한인 강제 동원 피해 조사를 벌여왔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 정부는 작년 5월 사할린 한국인 묘 발굴과 봉환 사업

등에 합의해 고 유홍준 씨의 유해가 작년 8월 처음으로 국내로 돌아온 바 있다.

위원회는 2007년 이후 사할린 한인 묘 1만여 기를 확인했고, 2011~2012년 조사한 6천598기의 묘 중 유족을 확인한 묘는 1천45기라고 집계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유족과 봉환 협의가 완료되고 러시아 정부로부터 사망증서가 발급된 유해부터 차례대로 국내로 들여오기로 했으며, 내년엔 3차 봉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버지니아 주 동해병기이끈 피터김특강



▲ 피터 김(사진 앞줄 가운데) '미주 한인 목소리' 대표와 대학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원(단장 임채완)은 9월 18일 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회의실에서 세계한인포럼을 열어 피터 김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 대표 초청 특강을 열었다. 그는 특강에서 버지니아 주 동해 병기 법안 통과와 배경과 과정을 소개하고, 동해 병기 법안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미주 한인 1.5세인 피터 김은 올해 2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버지니아 주의회가 주내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터 김은 버지니아 주 동해 병기를 넘어 2017년 모로코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동해 병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활동을 펴고 있다.

임채완 한상문화연구원장은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700만 재외 한인들은 현지 사회 적응을 넘어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재외한인에 관한 연구, 협력을 통한 한민족 공동체 구축이 21세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이라고 포럼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피터 김 대표는 9월 24일 부산 영산대에서 열린 버지니아 주 동해 병기 법안 통과와 시민운동을 주제로 특강을 열고 2012년 2월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을 통해 '미 교과서 동해 표기운동'을 벌이고 면밀한 전략으로 정치인들을 한 명씩 설득한 과정을 설명했다.

재미한인들, 국회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토론회' 연다

워싱턴DC, 뉴욕, 로스앤젤레스의 재미 한인들이 국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영진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 회장과 이민법전문가 전종준 변호사 등은 9월 17일 워싱턴DC 근교 애넌데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 6일 국회의 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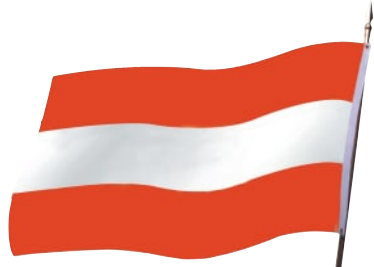
이들은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포함된 현행 국적법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국적자가 되고, 그로 인해 미국에서 공직 진출에 불이익을 받는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재미 한인사회 전체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다루기 위해 '전 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현 국적법상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출생했다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인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 중 남성의 경우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간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병역기피 방지를 위해 병역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김영진 회장은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때문에 주한미군으로 배속됐다가 한국군으로 복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도 있었다"며 "법은 지켜야 하고 병역기피 역시 막아야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 또한 양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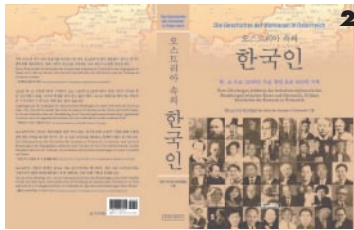
▲ 토론회를 앞둔 김영진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 회장 등 재미 한인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50년 넘은 오스트리아의 한인 이주 역사 유학생을 모태로 한인회 결성



2012년 9월 28일 오스트리아
한인의 50년 역사를 담은 책
'오스트리아 속의 한국인' 이
국내에서 출간됐다. 700쪽에 달하는
이 책에는 1900년 초 한국에서 생활



한 소수의 오스트리아 사람에서부터 1930년대 오스트리아에 유학한 식민지 유학생들, 2개의 조국을 가진 최근의 한인 2세대까지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수교 120주년이 되던 해에 펴낸 이 책에는 반세기 전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회 회원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을 위해 모금한 돈으로 많은 도움을 준 일이나 매년 100명에 달하는 한국 학생을 초청해 유럽식 교육을 받게 해준 비화 등도 담겼다.

책에는 유학생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다. 고종 황제 때 수교하고 이범진 외교관이 최초로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이후 일제 강점기에도 한국인들은 오스트리아에서 유학했다. 광복 후 1970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내며 불모지였던 한국 박물학의 기틀을 잡은 김재원,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로 우리 근대 문학을 빛낸 이미륵, 북한에서 활동했지만 한국 고고학의 뿌리를 내린 도유호 등이 일제 강점기의 유학생이다. 한국 음악계의 대부로 일컬어지는 피아니스트 정진우, 서울대 음대 학장을 지낸 피아니스트 신수정, 안병영 전 교육부 장관, 김현욱 전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 장면 전 총리의 아들인 천주교의 장익 주교(전 춘천교구장), 건축가 승효상 등은 오스트리아에서 유학한 뒤 이름을 널리 알린 국내 인사들이다.

대한민국 초대 퍼스트레이디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카 여사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33년 2월 제네바의 국제연맹본부에서 열린 국제회의의 개막식에 참석했다가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 결혼했다. 박종범 오스트리아한인연합회 회장은 "수십 명에 이르는 저자가 직접 구술을 듣거나 현장을 취재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현지 언어인 독일어를 병기해 출간한 한인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기아자동차 오스트리아 법인장을 지낸 뒤 무역회사인 영산한델스를 설립하며 독립, 연매출 1조 원을 올리는 영산그룹을 일궈낸 거상이다.

오스트리아한인연합회는 50년 한인 역사를 엮어낸 외에도 '한인회지'를 계간으로 펴내고 있으며 한·오 필하모니



1. 오스트리아한인연합회는 2013년 7월 오스트리아 수재민에게 수재의연금 1만 5천350유로(약 2천만 원)를 전달했다. 2. 오스트리아 한인의 50년 역사를 담은 책 '오스트리아 속의 한국인' 표지 3. 오스트리아 출신인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4.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 120주년을 기념하는 '우정의 하모니'가 2012년 11월 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다. 5.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일대기를 책으로 쓴 오스트리아의 한인 소설가 이순애 씨 6. 2014년 9월에 열린 부산 세계한상대회에서 대회장장을 맡은 박종범 오스트리아한인연합회 회장



오케스트라 콘서트, 케이팝(K-Pop) 경연대회 등 각종 문화 행사도 적극적으로 주관 및 지원하고 있다.

유학자유화이후거주한인증가

오스트리아에서 한인 역사는 1960년대 유학생 중 일부가 남아 동포사회를 형성하면서 시작됐다. 오스트리아에 우리나라의 대사관이 설립된 것은 1966년의 일이다. 1970년대에는 계약 기간이 끝난 독일의 광산 근로자 중 일부가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정주했다. 1972년과 1973년에는 매년 50명씩 한국의 간호사가 오스트리아로 파견됐으며 이들 중 20여 명이 오스트리아 남자와 결혼했다.

이때를 기해 유학생 중심의 학생회가 모태가 된 정식 한인회가 발족했다. 현재 오스트리아 한인회에서 유학생 출신이 다수를 점유하게 된 것은 1985년 말 정부의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외 유학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렸기 때문이다. 그 전에도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을 비롯해 공학, 독어,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으나 유학 자유화 이후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학생이 몰려들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외국인에게 관대한 나라다. 한국인에게도 10년 이상 거주하면 시민권을 부여했고, 특히 오스트리아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10년 이내에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 간호사는 입국 4년 만에 시민권을 받았다.

오스트리아는 간호사와 광산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접한 독일과 공통점이 있다. 한인사회의 역사가 유학생을 주축으로 이뤄진 집은 프랑스 등 서유럽의 여러 나라와 유사하다. 오스트리아 한인들도 다른 유럽 국가에서처럼 한글학교를 중요시하고 있다. 1980년 10월에 설립한 비엔나한글학교에서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10여 개 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다. 학생 구성원은 다양하다. 동포 자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주재원 자녀의 수가 늘고 있고 유치원 과정에는 국제결혼 자녀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오스트리아의 한인들은 수도인 빈은 물론 잘츠부르크, 인스브루크, 린츠, 클라겐푸르트 등 여러 곳에 분산돼 살고 있다. 이들의 직업 역시 대학교수, 의사, 태권도 사범, 간호사, 회사원 등 다양하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동포들의 업종으로는 무역업, 골프장, 선물센터, 한국식당, 여행사, 한국식품점 등이 있다.

외교부에서 집계한 2013년 현재 오스트리아 동포 수는 2천374명으로 2천 명을 밑돌던 2007년보다 크게 늘었다. 8



전 세계 동포사회도 풍성한 한가위 축제 “추석, 현지인과 함께 즐겨요!”

9월 8일 한가위를 맞아 전 세계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다채로운 축제 마당이 9월 한 달 사이에 펼쳐졌다. 지구 반대편 남미 아르헨티나에서는 동포 모임인 재아르헨틴 한인타운회가 28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014 한가위 대축제'를 열었다. 행사에서는 민속놀이와 각종 공연을 펼치고 먹거리 장터와 경품 추첨 등도 곁들였다.

에과도르 수도 키토에서도 고향 추석 기간에 맞춰 한가위 체육대회를 마련했다. 북미 멕시코 북부 티후아나 한인회는 6일 시내 모델로스 공원에서 1천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티후아나 한인 한가위 대축제'를 열어 멕시코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했다. 동포들은 사물·민속놀이, 태권도 시범, 케이팝(K-Pop) 경연대회를 준비했다. 이어 17일 수도 멕시코시티 한글학교에서는 '한가위 축제'가 별도로 열렸다.

브라질 상파울루 시에서는 13~14일 한인 동포와 현지인들

이 함께하는 제8회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다. 상파울루 시내 한인타운인 봉헤치로 지역에 있는 한국학교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는 사물놀이와 케이팝(K-Pop) 공연, 태권도 시범, 고전무용, 한복 패션쇼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선보였다. 이와 함께 한국 음식 시식, 한글 서예로 이름 써주기, 한지 공예, 전통 혼례복 사진촬영, 제기차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코너도 마련됐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추석을 맞아 가까운 이웃과 함께 회식을 하거나 종교단체, 학교에서 한가위 잔치를 열었다. 추석인 8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한국인 교사는 물론 외국인 교사도 참여하는 한가위 잔치를 마련했다.

잔치는 학부모들의 강강술래 공연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사



1.2. 브라질 상파울루 시에서 열린 제8회 한국 문화의 날 행사 3.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한 미국 평화봉사단 출신 미국인들이 추석상을 마련했다. 왼쪽에서 세 번째가 낸시 켈리 '프렌즈 오브 코리아' 회장이고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황원균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장이다. 4.5.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한가위 맞이 한인체육대회'



물놀이 연주, 전통예절 시범이 이어졌고, 스크린에 달을 띄워놓고 모두 함께 소원을 빌었다. 학년 대항으로 투호와 윷놀이를 펼쳤고, 외국인 교사들도 한복을 입고 학생들과 제기차기를 함께하며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현지인과한인이함께 어울리는 축제 한마당

미국 뉴저지 주의 한인 사회도 추석맞이 대잔치를 준비했다. 뉴저지한인회는 19~21일 뉴저지 주 뉴오버팍 파크에서 유명 한국 가수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열었다. 사흘간의 축제 기간에 씨름대회를 비롯해 축구대회, 태권도 시범공연, 노래자랑 등 풍성한 행사가 마련됐다.

1960~70년대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한 미국 평화봉사단 출신 미국인들도 추석상을 차렸다. 한국 평화봉사단 동문 모임인 '프렌즈 오브 코리아'는 7일 버지니아 주 켈페퍼 카운티에서 추석맞이 모임을 열었다. '평화봉사단 커피'로 잘 알려진 래리(64)·테리사(63) 게스팅 부부의 자택 뒤뜰에서 열린 이번 모임에는 모두 60여 명의 평화봉사단 출신 미국인과 한인이 참석했다. 지금까지는 한인들이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추석 행사를 주최했으나 이번에는 평화봉사단 측이 송편과 떡을 마련하고 추석상을 차렸다.

캐나다 북부 토론토한인번영회도 6~7일 토론토 노스욕시청에서 약 2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가위 대축제를 개최했다.


번영회는 이들간의 행사를 통해 현지에 한인들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러시아에서는 '한가위 맞이 한국문화주간사업' 행사를 열어 현지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렸다.

아프리카 대륙 남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4일 요하네스버그 미드랜드 프라이머리 스쿨에서 한인회 관계자, 대사관 직원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인회의 가장 큰 축제인 '한가위 맞이 한인체육대회'를 열고 흥겨운 한때를 보냈다.

동포들은 이날 줄다리기와 피구, OX 퀴즈, 릴레이 등 다양한 게임과 한국 왕복 항공권, 대형 TV 등 푸짐한 경품 추첨 행사로 뒤늦게나마 풍성한 한가위 기분을 만끽했다.

김진의 한인회장은 박경하 수석부회장이 대신한 인사말을 통해 "이민사를 보면 3%의 용감한 사람이 새로운 신천지를 개척한다고 한다"며 "고국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그동안 힘들고 외로운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위로받고 새롭게 충전, 재도약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프타운 한인회도 추석 한가위 행사 일환으로 같은 날 론테보시 스포츠 클럽에 모여 다양한 행사를 펼치며 우의를 다졌다.

슬로바키아의 질리나 지역 한인축구회는 7일 현지 한인 업체 직원과 가족을 초청해 체육 및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뉴질랜드 퀸스타운한인회도 8일 퀸스타운와카티프 호수공원에서 한가위 잔치를 열어 민속놀이와 전통음식 등을 선보였다. 

뉴질랜드 총선서 3선에 성공한 한인 멜리사 리 “중책 맡고 싶다” 장관직 포부도 밝혀

한인 멜리사 리(48·한국명 이지연) 의원이 9월 20일 시행된 뉴질랜드 총선에서 집권 국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됐다. 언론인으로 활동하다 지난 2008년 한인으로는 처음 뉴질랜드 정계에 진출한 그는 이로써 내리 세 번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까지의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뉴질랜드를 위해 중책을 맡고 싶다. 열심히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장관직에 대한 포부도 감추지 않았다.

리 의원은 “그동안 국회 사회개발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모든 법안 심의 내용을 밤을 새워가며 다 읽고 나서 처리하고, 지역구 행사 등 민원도 직접 다 챙겼다”고 소개하며, “정치를 하면서 배운 소중한 경험은 그 누구도 나의 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우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며 “양국의 좋은 점을 근간으로 해서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통상, 교육, 관광, 영화, 제조업 분야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다”며 “농수산 분야에서도 뉴질랜드가 지난 1960년대에 한국에 소 1만 마리를 지원했던 것처럼 협력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선거 기간에 많은 동포가 나서서 지원해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한인들이 지금 사는 곳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리 의원은 “한인 사회 젊은이들이 각 분야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그렇게 하면 지역사회에서 경험을 쌓고 나서 중앙무대에 진출하는 게 한층 쉬워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멜리사 리 의원이 오를랜드 한인회 초청 간담회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호주 디지털 마케팅계의 기린아정회관 래시 크리에이티브 대표 백인 주도의 광고·마케팅 시장서 두각

“앵글로 색슨계 백인들이 장악하는 호주 주류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꿈과 도전 정신을 지닌 더 많은 한인 1.5세대들이 호주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계 호주인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호주 주류 광고·마케팅 업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정회관(29) 래시 크리에이티브(Lash Creative) 대표는 앳된 용모와는 달리 본인의 말처럼 시종일관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다.

이민 1.5세인 정 대표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인 1993년 뉴질랜드로 조기 유학을 가 현지에서 초등학교 과정을 마친 뒤

1999년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호주로 이주했다. 한국의 특목고에 해당하는 시드니 서부 보크햄힐스 하이스쿨을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차대 진학을 원했던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인의 꿈을 좇아 시드니공대(UTS) 시각디자인과에 입학했다.

그는 본인이 좋아하던 분야의 공부를 열심히 한 덕에 자신을 눈여겨본 담당 교수의 알선으로 호주의 '상위 10위' 광고회사인 호스트(Host)에 인턴으로 취직했고,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세계적 디지털 마케팅 회사인 레이저피시(Razorfish)에 유일한 동양인 디자이너로 스카우트됐다. 2년 뒤 25세의 젊은 나이로 또 다른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회사 아이소바(Isobar)로 높은 연봉을 받고 스카우트된 그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나섰다. 2012년 4월 자신의 회사를 창업했다.

그가 창업한 회사는 시드니에만 12명의 직원을 거느린 업체로 성장했고 시드니오페라하우스, ING은행, 오니즈카타이거(아식스) 등 경쟁한 기업이 고객에 포함돼 있다. 호주에서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최근 인도네시아에 자회사를 만들기도 한 정 대표는 내년 1월까지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 호주 디지털 마케팅계의 기린아 정회관 대표

41년간 제자 2만 명 배출한 이원일 사범

“스페인 태권도, 한국에 위협적일 만큼 성장”



▲ 41년간 스페인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며 2만여 명의 제자를 길러낸 이원일 씨

“스페인에는 선수와 일반인을 모두 합치면 태권도를 익힌 사람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친 제자는 2만 명에 이르지요. 이 가운데 태권도 감독, 태권도장 관장, 사범, 국가대표 선수 등도 많아 저와 함께 태권도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스페인 태권도계 대부 이원일(7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은 “스페인은 한국을 위협할 정도로 태권도계의 강호”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스페인에서는 군인·경찰·일반인 가릴 것 없이 태권도를 심신 수련에 좋은 무술로 인식하고 있어서 선수층이 두텁습니다. 이젠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결승전에 한국 선수의 상대로 스페인 선수가 올라오는 일이 종종 있을 정도여서 보람을 느낍니다.”

1973년 태권도 사범으로 스페인에 첫발을 디딘 이래 42년째 태권도 보급에 힘써온 그는 최고수인 ‘입신(入神)’을 가리키는 9단의 무술가다. 6·25 전쟁 직후인 12살 때 맨손으로 기와 10장을 격파하는 태권도 시범을 보고는 그 매력에 푹 빠져 입문했다. 1967년에는 주월 한국군 맹호부대 태권도 교관으로 복무했고, 1971년부터는 3년간 인천공업

고등전문학교와 인천체육전문학교에서 태권도 감독을 지내다 스페인으로 건너갔다.

한국을 넘어서 세계에 태권도를 알리겠다는 포부를 안고 스페인에 정착한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원리태권도 도장’을 2012년까지 운영하며 현지인 제자를 양성했다. 지난 2012년에 스페인어 ‘태권도 교본’을 최초로 펴낸 그는 태권도장은 접었지만 유단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마스터 클래스’를 매년 운영하며 가르침을 계속 펼치고 있다. **김**



▲ 한인 축제 기간에 홍보관을 설치한 경상남도 관계자들이 지역을 알리는 소재자를 나눠주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 축제 개최 나흘간 풍성한 잔치 한마당

김종우 | 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 축제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 특설무대에서 '문화의 다양성: 함께 나누는 희망,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다.

18일 개막식에는 김준배 LA 한인축제재단 회장과 이사진, 미셸 박 스틸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부위원장, 허브 웨슨 LA 시장, 톰 리본지 시의원, 최석호 어바인 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 한국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동진 통영시장, 주철현 여수시장, 윤상기 하동군수, 전용성 부산시 부시장 등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 이어 열린 축하 무대에서는 세계적인 플루트 연주자 채스민 최 씨, 박애리·팝핀현준 부부, 베이징 무용대학 이경화 교수 등이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LA 한인 축제는 미주 최대의 한인 거주 지역인 로스앤젤레스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서부 지역 한인까지 참여하는 대표적인 한국 문화 대잔치다.


이번 한인 축제는 예년보다 훨씬 다채로운 형식과 내용을 담았다는 호평 속에 현지인의 참석도 크게 늘면서 성황을 이뤘다. 100여 개에 달하는 한국 팔도 지역 특산물 장터에는 축제 기간 내내 몰려

드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농수산 엑스포 코너의 280여 개 부스에서는 한국 전통 장류, 인삼, 젓갈, 한파 등 토속음식을 판매해 지역 특산품과 함께 큰 인기를 끌었다.

여기에 현대·기아·도요타·포드자동차 체험관과 T-모빌, 버라이즌, AT&T 홍보관 등 현대식 시설물도 가세해 조화를 이뤘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격인 제41회 코리아 퍼레이드는 폐막 전날 오후 한인타운 중심가인 올림픽 불라비드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그랜드 마셜을 맡은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과 명예 그랜드 마셜인 허브 웨슨 LA 시장이 한·미 정계를 대표해 무개차를 타고 행진했다.

한편, LA 한인축제재단은 행사 기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알리는 만화전 '지지 않는 꽃' 전시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목을 끌었다.

'LA 나비 USA' (회장 안젤리 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6월부터 세계 1억인 서명운동에 들어간 'LA 나비 USA'는 축제 기간에 나비 모양의 팸플릿과 서명운동 웹사이트(www.womenandwar.net/100million)가 새겨진 고무 밴드를 나눠줬다. 

재외동포의 혼인 및 이혼 혼인으로 취득한 국적은 이혼해도 유지

우리나라는 사실혼주의가 아니라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혼인 신고를 해야만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재외동포로서 우리나라 법에 의한 혼인은 국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영사관에 비치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결혼 당사자의 여권을 제시하면 된다.

재외동포와 외국인과의 혼인은 거주지 국가법에 의한 혼인으로 혼인신고서와 외국인 거주국에서 발행한 혼인증서를 제출하고 두 사람의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 모두 혼인 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사실을 기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뒤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라 할 수 없고, 불법체류 기간은 귀화에 필요한 국내 체류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외국민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 합의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해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서면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작성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 신중히 협의해야 한다.

또 합의 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별개의 성격이므로 이를 분명히 해둬야 한다. 위자료로 얼마를 지급한다 고만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나중에 상대방으로부터 재산 분할 청구를 당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 제9회 국제결혼여성 세계대회가 2013년 10월 서울 양재동에서 열렸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이혼 조정을 신청할 때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 사항 및 친권자 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 조정받을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①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 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국내에서 인정된다.

Q 본인은 원래 일본인 여자이나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되어 있으며 일본 국적은 상실했다. 남편과 이혼하면 본인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혼인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이혼하더라도 국적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일본의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국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1.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의 기후정상회의의 '기후 재정' 세션에서 공동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 주취 오찬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3.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 일반 토의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남북통일에 국제사회 협조 요청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3일부터 이틀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기후정상회의, 유엔총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급 회의, 유엔 글로벌고유우선구상(GEFI) 고위급 회의 등에 잇따라 참석해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24일 유엔총회 일반 토의의 첫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15분에 걸쳐 한국어로 진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통일 ▲북핵과 동북아 평화 ▲일본군 위안부 ▲북한 인권 ▲글로벌 이슈 등 제반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유엔 3대 임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 문제에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면서 “독일 통일이 유럽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유럽의 주춧돌이 되었다면, 통일된 한반도는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혀 남북통일을 독일 통일에 비견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의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 인권 문제도 동시에 거론하면서 국제사회의 압력

및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유엔 인권 이사회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상의 권고 사항을 채택했다”며 “북한과 국제사회는 COI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쟁 지역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여성과 아동들의 인도주의적 피해를 방지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런 취지에서 작년 2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분쟁하 민간인 보호에 대한 고위급 공개 토의’를 개최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했고 ‘분쟁하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의 대표국가로도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처럼 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구미서 개최 여성 경력 단절 예방 등 논의



▲ 제14회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대회가 경북 구미에서 열렸다.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개막 선언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해외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한인 여성 리더 500여 명이 참석하는 ‘제14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코윈 KOWIN : Korea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대회’를 8월 26일부터 4일간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개최했다.

26일 열린 개막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만들어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며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사회에 더 크게 기여할 때 우리가 꿈꾸는 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길 수 있고, 우리 경제와 사회도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코윈은 2011년부터 서울을 비롯해 인천, 부산, 울산, 여수, 대전 등지에 모여서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교류를 펼쳐왔다. 올해 대회에는 세계 36개국에서 220명과 국내 280여 명이 참가해 ‘경력 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강연과 토론 등에 참여하며 노하우를 나눴다.

이번 행사에는 스웨덴 명문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의 전문의 한 기숙, 루마니아에 한국 고구마 재배 등 농업기술을 전해 로열티를 받는 김인숙, 사우디아라비아 3대 병원인 키파드왕립병원의 수석간호사 배경란, 러시아 시할린 가가린호텔 대표 권행자, 호주국제음악대학 설립자로 세계한민족여성재단 이사장인 이경희 씨 등 의료·법조·예술·기업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 리더가 대거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 사업 활동을 공유하고 코윈 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지역담당관 회의와 함께 ‘일·가정 양립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생애 주기에 따른 경력 유지 방안 모색’ (정현경 미국 유니언신학대 교수), ‘도전하는 삶은 즐겁다’ (박향현 미국 LA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코윈의 역할을 논의하는 특별 세션에서는 국제적 공감대 조성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일과 출산·육아의 성공적인 양립을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여성 인력 활용, 워킹맘 지원, 재취업 확대, 이주여성의 경력 잇기,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 등을 주제로 강연과 네트워킹을 펼친 대회”라며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아빠의 달’ 제도 활성화, 아이 돌보미 서비스 등 국내외 정책도 다양하게 소개했다”고 밝혔다. 

갈리만탄고무나무 숲

최장오 | 인도네시아 | 2014제외동포문학상 시부문 우수상

폰티아낙 에콰도르를 지나
열대 우림이 만들어진 숲속 터널 길을 달린다
길은 물길 따라 흐르고
구름을 뚫고 나뉘며 숲속으로 숨어 있다
숲은 적도의 태양도 먹어버리고
생명을 잉태하며 밀림을 깊게 만든다
한바탕 폭우로 더 강해진 버시까유 다리를 건넌다

인도네시아 끝마을 바다오에 눈을 붙인다
천장에서 벼락거리는 선풍기 장단이
덜컥거리던 숲속 길과 중첩되고
밤새 숲의 흐느끼는 소리에 잠을 뒤척인다
숲속 끝마을에도 닭이 있어 높은 나무 위로 해를 친다
바다오의 아침은 늦게야 찾아왔다

숲이 부르는 소리 따라 발길이 닿는다
밤낮으로 지나온 풍경과는 전혀 다른,
끝없이 이어진 팜과 고무나무 숲으로 가득 차 있다
열대 우림이 만들어낸 정열한 하모니는 사라지고
잘 정리된 네모난 숲이 있을 뿐.

밤새워 이쁨을 깨워내던 숲의 소리가 거기 있다
모두가 나선으로 자해한 채 플라스틱 통을 하나씩 치고
생채기에서 고름 같은 하얀 액체를 떨군다
서있음이 고통이고 실어있음이 아픔이다
적도의 이글거리는 태양을 위태로이 마주하고 있다

라텍스 침대는 달콤한 휴식으로 유혹하고
고무바퀴는 낡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달린다

설새 없어 하얀 피를 토하는 고무나무의 신음으로
새들도 숨죽이는 적막한 아침이다



재외동포사진전 대상에 호주 권순형 씨의 '잘했어'

재외동포재단은 9월 3일 '제2회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 심사 결과 호주 권순형(남, 63세)씨가 출품한 '잘했어'를 대상으로, 우수상에는 독일에 거주하는 나남철(여, 59세)씨의 작품 '안간힘을 다해'를 선정했다.

오는 10월 5일 '제8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 재단이 재외동포사회를 국내에 소개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에는 지난 6월부터 7월 말까지 27개국에서 총 539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권순형 씨는 김철기 교수와 호주인 제자가 열정적으로 사물놀이를 하며 환호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출품했다. 이 사진은 해외에서 외국인이 우리 전통악기인 장구를 치며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한국의 전통음악이 세계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세계 속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심장을 뛰게 만드는 한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많이 출품됐다"며 "그 중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고 이것이 세계인들을 울고 웃게 만들 수 있다는 가치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평가했다.

심사는 김병만 월간 사진예술 대표, 양종훈 상명대학교 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교수, 차정환 동신대 산업디자인과 교수가 맡았다. 수상작을 포함한 130여 점의 사진은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전시됐다.



▲ 사진전 심사위원들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인을 감동시킬 수 있다"며 호주 권순형 씨의 출품작 '잘했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러시아·CIS 지역 한국어교사장기초청연수' 실시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기념하고 한글학교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열리는 '2014년도 러시아·CIS 지역 한국어교사 장기 초청연수'가 9월 1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원장 이해영)에서 개막됐다. 재외동포재단은 9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약 3개월간 4명의 고려인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장기·집중 초청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러시아·CIS 지역 한국어교사 장기 초청연수' 대상자를 동포사회 세대교체에 따른 차세대 민족교육자 육성을 위해 카자흐스탄에서 2명,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와 이르쿠츠크에서 1명씩 선발했다. 선정된 4명의 고려인 한글학교 교사는 연수 기간 한국어 능력 개발, 한국 문화 체험, 역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모국어와 모국의 문화·역사에 대해 이해하고 습득하는 기회를 얻는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 능력 개발을 위한 발음 교육, 참관 수업, 특강, 식문화 및 전통 놀이 체험, 지역 탐방 등을 마련했다. 또한 경상북도 경주와 제주도 등 지역 문화 탐방을 통해 모국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하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러시아에서 참가한 고려인 교사 김약사나는 "이번 장기 초청연수에 선발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3개월의 연수 기간에 습득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고려인 동포사회에 한국어와 문화를 올바르게 보급하는 교육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㉞

바른 말 고운 말

봉오리/봉우리

“영미는 장미를 아주 좋아해. 활짝 핀 건 금방 시드니까 꽃봉우리가 있는 걸로 사는 게 좋지 않겠니?”

다른 사람에게 뭔가 선물을 해야 하는데 뭘 사야 좋을지 몰라서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주 선택하게 되는 선물이 바로 꽃입니다. 그런데 앞의 말에서 잘못 쓰인 낱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꽃봉우리’입니다. 간혹 ‘봉오리’와 ‘봉우리’를 잘못 알고 사용하는데, 이 두 표현은 전혀 다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봉오리’는 꽃망울이 생겼지만 아직 피지 않은 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는 ‘꽃봉오리’라고 하는데 줄여서 그냥 ‘봉오리’라고도 합니다. 반면 ‘봉우리’는 산꼭대기의 뾰족한 머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산봉우리’가 원말이고, 줄여서 그냥 ‘봉우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꽃망울이 생겼지만 아직 덜 핀 꽃을 말할 때는 ‘꽃봉우리’가 아니라 ‘꽃봉오리’ 또는 ‘봉오리’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관건/관계

뉴스에 자주 나오는 단어 가운데 ‘관건(關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나 핵심이 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건이란 빗장과 열쇠를 뜻합니다. 빗장과 열쇠는 무언가를 가두거나 열 때 각각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에 관건은 문제의 해결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빗장을 뜻하는 ‘관’ 자가 쓰이는 단어 가운데 ‘관계(關係)’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지명을 보면 ‘○○관’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관’ 역시 빗장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후대로 오면서 요새를 뜻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북방 이민족의 침략에 시달려온 중국이 험한 지형에 관을 만들고 이런 관과 관을 서로 연결하는 성을 쌓았습니다. 이때 쓰인 ‘관계’란 말은 후대로 더 내려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리나, 두 개의 사물이 연관을 갖는 것을 뜻하는 말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 낱말 맞추기 | 퀴즈를 풀어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 10월호 문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오른쪽 방향 열쇠

- 사람과 닮은 유인원 중에서 가장 큰 동물. 영화 ‘킹콩’에 나오는 동물
- 옷 따위의 두 쪽이나 두 짝을 한데 붙였다 떼었다 하는, 옷고름이나 끈 대신으로 쓰는 물건. 수단추를 압단추에 끼거나 한쪽만 수단추를 달고 구멍에 끼우기도 한다.
-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친 수군 장수. 거북선을 만든 장군
- 대학이나 학원을 제외한 각급 학교의 으뜸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 집채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깎 날뻗지. 또는 그 날뻗지를 깔아 놓은 곳
-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이 있다.
- 글을 쓰거나 사무를 보는 데 필요한 도구를 파는 가게
-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상대방과 통화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
-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우려낸 율물을 떠내어 달인 검붉고 짭맛이 나는 액체. 음식의 간을 맞추는 양념으로 쓰인다.
- 등장인물의 성격, 나이, 특징 등에 맞게 배우를 꾸밈. 또는 그런 처림새
- 좋은 운수. 또는 행복한 운수
- 빛의 반사를 이용해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 보는 물건. 보통 유리 뒤쪽에 이말감을 발라 만든다.
- 지은 지 오래돼 식은 밥
- 물을 걷기 위해 땅을 파서 지하수를 피게 한 곳. 또는 그런 시설

▶ 9월호 정답

축		조	종	사		마	라	톤
제	기		이		서	리		
	마		배	낭		아	수	라
동	전			자	동		비	
년		고	막		서	울		
배	신		장	군			사	장
	발	음		복	수			유
수		악	수		제		우	유
영	양	가			비	석		서

아래쪽 방향 열쇠

- 쌀이나 보리로 질게 지은 밥에 메줫가루·고춧가루·소금을 넣어 섞어 만든 붉은 빛깔의 매운 장
- 양치식물 고사리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1m 정도며 어린잎은 식용하고 뿌리줄기는 녹말을 만든다.
- 숫사자와 암호랑이의 교배 잡종인 동물
- 짚으로 만든 신
- 교제를 끊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를 끊음
- 속에 물건을 넣을 수 있게 형질 따위로 길고 크게 만든 주머니
- 숨기고 있는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해 육체적 고통을 주며 신문함
- 말을 기르는 곳
- 모르는 낱말을 찾으려면 이것이 있어야 한다.
- 꽃을 심어 가꾸는 그릇
- 은행나무의 열매. 식용하거나 약으로 쓴다.
- 더운 장국에 만 밥
- 시간이 꽤 걸리는 먼 거리
- 돌아다니며 움직임. 보건을 위해 신체를 움직이는 일
- 딸의 반대. 남자로 태어난 자식
- 더운물의 반대말

추억 속의 관광 명소 경주 신라 천년의 역사를 돌아보다



경주에는 내물왕릉이나 무열왕릉처럼 무덤의 주인이 밝혀진 왕릉과 천마총이나 황남대총처럼 주인을 알 수 없는 왕릉급 무덤이 곳곳에 자리해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전성기 서라벌(경주의 옛 이름)에는 17만 8천936호가 있었다고 하니 현존하는 무덤의 수는 그리 많은 것도 아니다. 8~9세기 서라벌은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모든 가옥을 기와로 지어 초가는 한 채도 없었다고 한다.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을 보면 신라의 왕은 금관을 쓰고 허리에 금띠를 댔다. 또 용과 봉황이 장식된 큰 칼을 차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다. 금으로 만든 관, 반지, 팔찌, 귀고리, 목걸이, 신발 등은 5세기부터 6세기 전반의 왕릉과 왕릉급 무덤에서 집중 출토됐다. 금관만 6개가 나왔다.

경주에는 한국 씨족마을의 원형인 '양동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1984년 마을 전체가 중요민속자료 제189호로 지정됐고, 2010년에는 하회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했다. 씨족마을의 구성 요소인 종택, 살림집, 정자, 서원, 서당 등 유형유산과 유교 예법에 따른 의



1. 양동마을 2. 경주 양남면 해안의 주상절리 3. 경주 양남면의 파도소리길
4. 황금빛으로 물든 동궁 월지의 야경 5. 첨성대 야경

레, 전통 놀이 등 무형유산이 전해진다. 국보 1점, 보물 4점, 중요 민속자료 12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2점 등 국가와 시도 지정 문화재만 22점이 있다.

양동마을의 두 축은 경주 손씨와 여주 이씨다. 두 집안은 청백리로 널리 알려진 우재 손준돈, 영남 사림파의 거목인 회재 이언적, 임진왜란 때 의병장 손엽 등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주상절리파도소리길과야경

주상절리 파도소리길은 경주 양남면 읍천리에서 하서리 사이 1.7km 해안 코스를 말한다. 구간별 환경을 고려해 몽돌길, 야생화길, 등대길, 테크길 등 테마 코스가 조성돼 있다. 읍천항 공원에서 출발하면 곧바로 출렁다리가 나온다. 다리 한쪽에는 우거진 해송이, 다른 한쪽으로는 푸른 동해가 펼쳐진다.

출렁다리를 지나면 파도소리길의 백미로 꼽히는 '부채꼴 주상절리'가 나타난다. 주상절리는 용암이 지표를 뚫고 분출된 뒤 급속히 냉각되면서 만들어진다. 신생대 말기에 생성된 양남 주상절리는 마그마가 다양한 방향으로 냉각돼 우리나라 해안의 다양한 주상절리를 한자리에 모아 놓은 형태를 띤다. '부채꼴 주상절리'는 돌기둥이 부채살처럼 펼쳐져 만개한 국화를 연상시킨다.

파도소리길은 하절기 오후 9시 30분, 동절기 오후 8시까지 전 구간에 불을 밝혀 야간 산책이 가능하다.

경주는 해가 지면 신라 시대의 서라벌로 다시 태어난다. 서라벌의 영화를 말해 주는 유적들이 그윽한 달빛 아래 가지개를 켜다. 서라벌은 전성기 때 당나라의 장안, 비잔틴제국의 콘스탄티노플에 비견되는 국제도시였다. 날이 저문 후 동궁(東宮) 월지(月池), 첨성대(瞻星臺), 대릉원 등이 모여 있는 경주 역사유적지구를 걸어보면 서라벌의 정취와 숨결을 느낄 수 있다.

동궁은 신라 태자가 살던 별궁이며 월지는 동궁 내 연못이다. 신라인들은 월지 남서쪽 호안은 직선으로, 북동쪽 호안은 복잡한 곡선으로 설계해 연못가 어디에서도 전경(全景)을 파악하기 힘들게 했다. 비록 작은 인공호수지만 바다를 마주한 듯한 느낌이 나도록 구획한 것이다.

첨성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자 신라 27대 임금인 신덕여왕(재위 632~647년) 때 왕궁 앞에 세운 석조 건축물이다. 음력으로 1년(362일)을 의미하는 총 362개의 돌로 쌓아 올렸는데 술한 벼락과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1천400년 가까운 세월을 견뎌냈다.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알려져 있다. 窓

1443 | 한글을 만들다


2014 |

한글로

복귀하라

한글로 만들어가는 우리 문화,
국립한글박물관이 열렸습니다.

2014. 10. 9.
문을 열다

 국립한글박물관
NATIONAL HANGEUL MUSEUM

포스터 디자인: 이견만 | 글씨: 강병인

EUROPE
124,000

CIS
491,000

CANADA
205,000

USA
2,091,000

CHINA
2,573,000

JAPAN
892,000

MIDDLE EAST
25,000

AFRICA
10,000

SOUTHEAST ASIA
296,000

OCEANIA
188,000

CENTRAL AND
SOUTH AMERICA
111,000

“700만 재외동포,
세계속의 한국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